

경남지방 별서의 경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안계복* · 오태호**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Byeolsoe in Gyeongnam Province

Ahn, Gye-Bog* · Oh, Tae-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tholic University of Deagu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eagu

ABSTRACT

‘Byeolsoe(別墅)’ means a kind of building that is built where is separated from main house. From the results of our field investigation, we could see that every type of the Jungja(亭子) a kind of Byeolsoe-building in Gyoungnam Province. And the types of building plan found are center-focused room, eccentric room, seperated room, and the one without room. And also, we could find that the most representative location type of Byeolsoe is on the hill where the cliff is on the riverside. That is, both waterscape and rockscape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omposition of landscape treatment of Byeolsoe in Gyoungnam Province. In waterscape, “waterfall+swamp+fast-flowing stream” structure which is connected with river or mountain stream is found prominently, and in the case of rockscape, bedrocks, boulders, and Dae(臺) that are present in nature are used prevalently rather than an artificial hill or disposing rocks on purpose. Treating and disposing landscape of Byeolsoe in Gyoungnam Province, the perspective view(average perspective distance is 5.6km) and several axes of view are used.

Key Words : Location Type, Waterscape, Rockscape, Landscape Treatment.

국문초록

별서(別墅)란 ‘본채와 나누어져 있는 별도의 장소에 거처할 곳’을 만든 것을 의미한다. 경상남도의 별서 건축물인 정자의 평면형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지방과 달리 모든 형태(중심형, 편심형, 분리형, 무실형)들이 모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별서의 가장 대표적인 입지유형은 “강변에 절벽이 있는 언덕 위”라고 할 수 있다. 경남지방의 별서는 수경(水景)과 더불어 바위경관(암경 巖景)이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별서의 수경관 구조는 하천이나 계류와 연계된 “폭포+소+급류”의 구조가 가장 대표적이다. 별서의 바위경관은 인위적으로 석가산을 쌓거나 돌을 배치하기보다 자연에 있는 암반과 바위, 대(臺)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경남지방의 별서는 주로 원경(遠景)과 다경(多景)을 경관처리기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별서의 평균조망거리는 5.6km이다.

주제어 : 입지유형, 수경관, 바위경관, 경관처리기법, 조망거리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별서(別墅)란 ‘나눌·별, 농막·서’자를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본채와 나누어져 있는 별도의 장소에 거처할 곳’을 만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별서라는 용어는 ‘별

* Corresponding Author : Ahn, Gye-Bo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712-702, Korea. Phone : +82-53-850-3190, E-mail : gbahn@cu.ac.kr

업(別業)이라는 단어와 혼용하여 사용¹⁾하였는데, 별업이란 '나눌·별, 일·업'자를 사용한 단어이므로 '자신이 하고 있던 본래의 일과는 동떨어진 별도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별서와 별업을 합쳐서 해석해 보면, '세속을 피하고 은둔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본체와 좀 떨어진 아름다운 장소에 별도의 건물을 짓고, 자신의 본업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본업과는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나 인공적인 정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풍류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별서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농막(塹)이기 때문에 때로는 초라한 집이란 뜻으로 '오두막 집·려(廬)자를 사용하여 '진려(田廬)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별서를 경영한 사람은 최치원이다. 삼국사기 제46권 열전 최치원조에 최초의 별서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기록²⁾에 의하면 '혼란한 세상(亂世)을 만나 스스로 불우함을 한탄하고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산림(山林)이나 강과 바다를 소유했으며 대(臺)를 경영하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책에 몰두하거나 풍월을 읊었다. 경주의 남산, 강주의 빙산, 협주의 청양사, 지리산 쌍계사, 합포현은 모두 그가 유(遊)했던 별서다'. 이러한 고문헌에 별서라고 기록된 장소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행태를 분석하여 별서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삼국사기에 나타난 별서의 의미는 벼슬을 하지 않고, 산천이 좋은 곳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대를 경영하며, 서적에 몰두하고 풍월을 읊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읍지에 기록된 별서를 조사한 김영빈과 안계복(1985: 2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별서는 은둔생활을 하기 위한 것, 효도를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서구의 별장(villa)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별서의 개념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별서라고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적인 작정 행위가 많이 행해진 곳으로 알고 있다. 그 원인은 소쇄원의 방지와 화계, 그리고 부용동 원림의 연못들과 동천석실 등이 판단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별서들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별서란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경관보다는 자연에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도록 조성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제까지의 소규모로 연구하던 연구 추세에서 벗어나 경남지방 별서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제까지 경남지방의 별서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지방에 문혀 그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전통정원의 특징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중·일 전통정원의 특성비교 및 현대 전통공간의 재창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사

김용기와 이재근(1992)은 영남지방의 서석지 등 4개소와 호남지방의 소쇄원 등 4개 별서를 조사하여 별서의 지역적 특성을 밝힌 바 있다. 이재근(1992)은 서울·경기 4개소, 충남 3개소, 영남 4개소, 호남 5개소의 별서를 조사하여 특징을 밝힌 바 있다. 양병이 등(2003)은 소쇄원 등 4개소를 조사하여 별서에 선비문화가 투영되었음을 밝혔다. 김용기 등(1994)은 서석지, 소쇄원 등 8개소의 별서를 조사하여 수경관기법을 조사한 바가 있다. 김수진 등(2006)은 강진 백운동 별서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2008년도에는 밀양 월연대 별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지금까지 별서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별서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논문이 많은 편이 아니며,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소쇄원을 포함한 4~8개소의 소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최근 이제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단일 별서 대상지를 연구한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연구는 추후에도 계속 되어야만 할 것이다.

II. 조사대상지 및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고문헌과 현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문헌조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읍지, 대동지지 등을 조사하였고, 현대 문헌은 문화원에서 발간한 누정지와 누정에 관한 개별 논문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지에 대한 1차 조사는 2010년 4월 16일부터 2010년 6월 16일까지 그림 1의 현장조사표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수한 별서 사례지에 대한 심층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에 대한 현장 추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2010년 8월 14일과 15일, 3차 조사는 2010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경상남도의 초기 연구대상지는 표 1³⁾과 같이 62개소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별서가 아닌 곳 10개소를 제외시키고, 52개소를 최종 연구대상지로 삼았다.

연구대상지의 경관적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표를 만들어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장조사표에는 정자 건물의 평면형태, 입지 특징, 조경요소, 경관구조, 경관처리기법, 경관조망을 빠짐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었다. 이 현장조사표에는 조사 항목이 더 있었지만 본 연구와 관련된 것만 예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조사된 항목은 빈도 분석을 실

표 1. 경상남도 조사대상지 목록

	정자명	소재지	연구 대상지		정자명	소재지	연구 대상지
1	요수정(樂水亭)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66	○	32	도천정(陶川亭)	합안군 가야읍 신음리 14-1	○
2	모현정(慕賢亭)	거창군 가조면 도리 58	○	33	소우정(消憂亭)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1046	○
3	원천정(原泉亭)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778	○	34	어부정(漁父亭)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342	○
4	이요정(二樂亭)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022	×	35	문암정(聞巖亭)	창녕군 계성면 사리 산 10	○
5	일원정(一源亭)	거창군 남상면 전적리 530	○	36	취우정(聚友亭)	합안군 가야읍 신음리 15	○
6	심소정(心蘇亭)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358	○	37	동산정(東山亭)	합안군 검암리 115-1 외 1	○
7	사락정(四樂亭)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213	○	38	합강정(合江亭)	합안군 대산면 장암리 산 60-1	○
8	용암정(龍巖亭)	거창군 북상면 간계리 63	○	39	광심정(廣心亭)	합안군 칠북면 봉촌리 230	○
9	인풍정(引風亭)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303-1	○	40	하환정(何換亭)	합안군 칠원면 무기리 966	○
10	소천정(蘇川亭)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0	×	41	무진정(無盡亭)	합안군 함안면 괴산리 547	○
11	산해정(山海亭)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737	×	42	반구정(반구정)	합안군 대산면 장암리 산 1	○
12	관해정(觀海亭)	마산시 교방동 237	×	43	망월정(望月亭)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357-8	○
13	남수정(攬秀亭)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862	×	44	등구정(燈九亭)	함양군 병곡면 언덕리 223	○
14	곡강정(曲江亭)	밀양군 초동면 검암리 436	○	45	거연정(居然亭)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877	○
15	오연정(鰲淵亭)	밀양시 교동 208	○	46	군자정(君子亭)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881-2	○
16	반계정(盤溪亭)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81	○	47	동호정(東湖亭)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842	○
17	박연정(博淵亭)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902	○	48	농월정(弄月亭)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
18	월연정(月淵亭)	밀양시 용평동 627-171	○	49	심원정(尋源亭)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1353	○
19	모선정(慕先亭)	밀양시 초동면 신흠리 220	○	50	교수정(教授亭)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142	○
20	읍청정(挹淸亭)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8-2	○	51	병담정(屏潭亭)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1059	○
21	이요정(二樂亭)	산청군 생초면 노은리 188-1	○	52	이요정(二樂亭)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6	○
22	소현정(小閑亭)	양산시 어곡동 1880번지	○	53	조선정(樵仙亭)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8-2	○
23	용호정(龍湖亭)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25-2외	○	54	함허정(涵虛亭)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산 13	○
24	부사정(浮查亭)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659	○	55	제월당(霽月堂)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291-2	×
25	고산정(孤山亭)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산 131	○	56	농산정(籠山亭)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
26	우곡정(隅谷亭)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326	○	57	광암정(廣巖亭)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805-8	○
27	부용정(芙蓉亭)	창녕군 성산면 냉천리 222	×	58	뇌룡정(雷龍亭)	합천군 삼가면 외돌이 46	○
28	요요정(樂樂亭)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산144	○	59	관수정(觀水亭)	합천군 쌍곡면 성산리 535	○
29	팔락정(八樂亭)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491-2	×	60	가남정(伽南亭)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 751	×
30	관술정(觀述亭)	창원시 내리동 38	×	61	벽한정(碧寒亭)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481	○
31	악양정(岳陽亭)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15	○	62	호연정(浩然亭)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24-1	○

시하였다.

별서의 정자 건물에 대한 평면형태 분석은 정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방(室)의 유무(有無)와 방(室)의 위치에 따라 중심형, 편심형, 분리형, 무실형, 배면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별서의 입지적 특징 분석은 강변(江邊), 단안(斷岸 절벽), 곡강변(曲江邊), 삼강합류지(三江合流地), 구상(丘上 언덕 위), 연못(池), 산계(山溪)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러나 입지 특성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럴 때에는 모든 특징을 조사하였다.

조경요소 가운데 수경요소는 하천, 계류, 소, 급류, 폭포, 연못, 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그런데 수경요소는 별서에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2~3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단일출현과 복합출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경요소 가운데 암경(巖景)요소는 암반, 바위,

대(臺), 동굴, 동천, 석가산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암경요소는 수경요소와 마찬가지로 2~3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단일출현과 복합출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경관분석은 크게 경관구조, 경관처리기법, 경관조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현장에서의 분석은 1/25,000이나 1/50,000 지형도, 위성지도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경관구조는 안계복(1990: 64-65)의 경관구조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경관처리기법은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원경(遠景), 다경(多景), 환경(環景), 취경(聚景), 읍경(挹景)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단일 출현과 복합 출현을 비교분석하였다. 경관조망은 현장에서 경관조망도를 작도한 후 조망축을 설정하였다. 조망거리는 1/50,000 지형도를 현장에서 정치시킨 다음 스케일로 조망거리를 측정하였다.

경남 - 41		경남지방 별서 현장조사표		조사일자 : 2010년 6월 11일	
무진정(無盡亭)		조사자 : 안계복·오태호		조사자 : 안계복·오태호	
일반 현황					
소재지	경남 창원군 창동면 3번리 547	좌표	35° 15' 20" N / 128° 25' 23" E		
조성연대	1567년	지정현황	사후유언을 통해 지어 158호		
윤거형(柳居型)	풍류형(風流型)	추모형(追慕型)	서원형(西園型)	기타	
< 자연환경 분석 >			< 경관 분석 >		
입지 유형	산계(山溪)	강변(江邊)	곡강변(谷江邊)	삼강합류지(三江合流地)	단언(斷岸)
	구상(丘上)	연못(池)	숲(林)		
조경 요소	수경요소	하천	소	목포	담
	인공요소	암반	대(臺)	돌천(洞天)	괴석(怪石)
< 정자 평면 스케치 >			< 정자 배치 스케치 >		

그림 1. 별서 현장조사표 예시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지 성격 및 조영배경 분석

연구대상지 52개소에 대한 관련 문헌자료와 현장에서 수집된 기문(記文)을 통해 조영 배경을 분석하였다. 민경현(1991: 249)은 별서의 성격이나 조영배경에 따라 은거형, 휴양형, 추모형, 서원 및 정사형, 복합형으로 구분하였다. 은거형은 최치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유형으로 이의가 없는 유형이다. 그러나 별서 조영자들은 단순히 휴양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별서에서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기 위해 별서를 경영하였다. 따라서 휴양형이라는 용어보다는 풍류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별서에서 강학(가르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서원형으로 묶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서원의 공간구조와 별서의 공간구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은거형, 풍류형, 복합형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은거형이 전체의 82.7%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풍류형이 17.3%로 나타났다. 풍류형의 대표적 사례는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에 위치한 용암정(龍巖亭)이다. 기문(임지중 1985: 111-114)에 의하면 “아! 나의 조부는 일찍이 이곳에 뜻을 두고 나와 함께 꽃놀이하고 버들을

표 2. 조사대상지 성격 및 조영배경 분석표

대상지 성격	개소	백분율(%)
은거형	43	82.7
풍류형	9	17.3
계	52	100.0

따라가 용암의 주변을 돌아다니셨으며, 나의 부친 역시 이곳에 뜻을 두고 나와 함께 봄을 맞이하고 가을을 기다리며 용암의 주변에서 노니셨지만, 두 분 다 미처 정자를 지을 겨를이 없으셨다”라고 하여 조부와 선친이 노니던 곳에 별서를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에 위치한 동호정(東湖亭) 기문(함양루정지서, 2001: 316)에 의하면 “1576년 동호처사 장만리께서 마을을 짓고 바위에 노닐면서 낚시하며...”라고 기록되어, 동호처사의 풍류지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요수정 중간기(거창의 누정, 1998: 249)에 의하면 “정자 아래쪽 15리에 ‘사락정’이 있으니, 곧 퇴계선생이 와서 쉬면서 소요하던 곳이다”하여 사락정(四樂亭)이 퇴계선생의 풍류형 별서임을 알 수 있다.

2. 정자의 평면형태 분석

경상남도 별서 건축물인 정자 평면형태를 방(室)의 유무(有無)와 방(室)의 위치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표 3과 같다. 연구대상지 52개소에 대한 정자 평면형태는 중심형과 편심형이 각각 26.9%, 분리형이 21.2%, 무실형이 19.2%로 나타났다. 즉, 경남지방의 별서 건축물인 정자의 평면형태는 특정한 하나의 유형이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심형, 편심형, 분리형, 무실형 모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동오(1986: 28-35)는 전라남도에는 있는 62개소의 정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무실형(40.3%)과 중심형(35.5%)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안계복(1988: 494-495)은 경북지방의 61개소의 정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분리형이 72.1%로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방에는 무실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안계복 199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고찰해보면 우리나라의 정자 건축물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특징적

표 3. 정자의 평면형태 분석표

평면형태	본 연구(2010)	정동오(1986)	안계복(1988)
중심형	14(26.9)	22(35.5)	3(4.9)
편심형	14(26.9)	15(24.2)	9(14.8)
분리형	11(21.2)	0(0.0)	44(72.1)
무실형	10(19.2)	25(40.3)	1(1.6)
배면형	3(5.8)	0(0.0)	4(6.6)
계	52(100.0)	62(100.0)	61(100.0)

으로 발전해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문헌에서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의 정자 건축물의 방 배치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다. 경상남도의 정자 건축물은 인접한 경상북도는 물론 전라남도와의 확연히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3. 별서의 입지적 특징 분석

경남지방 별서 52개소에 대한 입지적 특징을 분석해 보면, 한 가지만의 입지 특징을 보이는 별서는 24개소(46.2%)다. 그 반면에 2~3가지의 중복적 입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별서는 28개소(53.8%)로 나타났다. 경남지방 별서 입지는 단일 특징을 갖는 별서보다 중복적으로 입지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 조금 더 많지만 크게 본다면 엇비슷한 비율이다.

별서 52개소에 나타난 입지 특징을 모두 수합해 보면, 한 장소에 2~3가지 특징이 있는 곳이 있으므로 모두 88개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표 4에 의하면 강변(江邊)이 28.4%, 구상(丘上)이 21.6%, 단안(斷岸)이 19.3%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합하면 69.3%에 달한다. 다시 말해 경남지방 별서의 입지는 ‘강변에 절벽(斷岸)이 있는 언덕 위(丘上)가 가장 대표적인 입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4. 조경요소

1) 수경요소

경남지방 별서의 수경요소는 연구대상지 52개소 가운데 46개소(88.5%)가 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별서의 경관구성에서 수경요소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수경요소도 한 별서에서 2~4개의 수경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수합하면 표 5에서와 같이 74개다. 이것을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로 나누어 보면 자연적 수경요소인 하천, 계류, 소, 급류, 폭포가 전체의 89.2%로 인위적으로 연출된 연못, 댐의 경우보다 사례가 월등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홍광표 등(2001: 8)은 ‘별서에서 계류를

표 4. 별서의 입지적 특징 분석표

입지 특징	개소	백분율(%)
강변(江邊)	25	28.4
구상(丘上)	19	21.6
단안(斷岸)	17	19.3
산계(山溪)	9	10.2
곡강변(曲江邊)	7	8.0
연못(池)	5	5.7
삼강합류지	4	4.5
숲(林)	2	2.3
계	88	100.0

표 5. 수경요소 출현 분석표

수경요소 출현	개소	백분율(%)	
		자연적 요소	인위적 요소
자연적 요소	하천	32	43.2
	계류	10	13.5
	소	11	14.9
	급류	7	9.5
	소폭포	6	8.1
인위적 요소	연못	7	9.5
	댐	1	1.4
계	74	100.0	

이용하여 지당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당의 형식은 주로 궁궐의 사례에 따라 방지원도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음양오행사상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남지방의 별서는 연못(9.5%)을 조성하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하천과 계류를 이용하는 형태(89.2%)가 훨씬 많다. 이러한 조성 비율을 통해 볼 때, 음양오행사상보다는 오히려 자연합일사상에 의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조영자의 의도를 나타내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김용기와 이재근 1992)에서는 ‘영남지방 별서 가운데 75%가 인공지원(人工池園)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현격한 차이는 조사대상지의 선정에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영남지방의 별서를 연구하면서 거연정, 경정, 초간정, 소한정 단 네 곳만을 연구대상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전수 조사한 연구 결과와 표본추출 조사의 현격한 차이점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경요소의 복합성을 살펴보면 단일요소의 출현이 전체의 63.0%였으며, 2개 이상의 수경요소가 복합적으로 출현된 경우가 37.0%로 나타났다. 복합적으로 출현된 경우, 하천 및 계류와 연계된 소폭포, 소, 급류의 구조가 전체의 88.2%로 나타나 수경요소에서 하천 및 계류와 연계된 “소폭포+소+급류”의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복합적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 사례는 거제부사를 지내다 그만두고 별서를 경영한 정지영의 경남 함양군 심원정과, 한국 최초로 별서를 경영한 최치원의 가야산 국립공원 내 농산정을 들 수 있다.

2) 암경(巖景)요소

경남지방의 별서에서는 수경(水景)과 더불어 암경(巖景 바위경관)이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자연에 있는 수경과 암경이 조영자에 의해 이름이 붙어지고 각자(刻字)가 새겨지면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여기에 시가 지어지면 문화경관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함양군에 있는 별서 동호정은 정자 주변에 수경으로서 옥녀담이 있고, 암경으로서는 장처사조대, 장호암, 주가대, 차일암, 금적대, 영가대, 금장암 등이 있다. 이러한 수경과 암경은 동호정의 경관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별서 조영자인 장만리(章萬里)는 1583년에 「영차일암

표 6. 암경(巖景)요소 분석표

	암경요소	개소	백분율(%)	
자연의 이용	암반	29	34.9	92.8
	바위	23	27.7	
	대	22	26.5	
	동천	2	2.4	
	동굴	1	1.2	
인위적 연출	괴석	5	6.0	7.2
	석가산	1	1.2	
계		83	100.0	

(詠遮日岩⁶⁾)이라는 시를 지어 동호정의 문화경관을 완성시키고 있다. 그밖에 경남 거창군의 용암정과 경남 산청군의 이요정 등 많은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경남지방 별서에서의 암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암반, 바위, 대(臺), 동천(洞天), 동굴, 석가산 괴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지 52개소 가운데 38개소에 암경이 있어 출현율은 73.1%이다. 암경도 수경이나 입지특징과 마찬가지로 중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조사해 보면 표 6에서와 같이 83개로 나타났다. 암반은 정자 건물이 세워진 곳의 기반이나 초석 역할을 하거나, 혹은 인접한 수공간에 위치하는데 그 구성비가 34.9%로 가장 높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은 기암(奇巖)을 포함한 바위로 27.7%이다. 현재 바위에 각자(刻字)되어 있거나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대(臺)는 26.5%로 세 번째이다.

바위경관을 크게 자연 암반을 이용하는 경우와 인위적 연출로 나누어 볼 때, 자연적인 이용은 92.8%인 반면에 인위적 연출은 7.2%에 불과했다. 따라서 별서를 조영함에 있어 암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석가산을 쌓거나 돌을 배치하는 수법보다는 자연에 있는 암반과 대(臺)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는 수법이 훨씬 선호된 방식으로 나타났다. 대(臺)에 각자를 새기고 여기에 올라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기면 별서의 문화경관을 완성해 나갔다.

5. 경관분석

1) 경관구조분석

별서가 있는 정자 혹은 정자 주변부에서 경관을 향해 바라보는 조망점을 기준으로 하여 축 선상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관구성요소들을 4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별서의 배경과 별서 주변부에 해당하는 근경, 그리고 별서 앞쪽으로 좀 떨어진 곳의 중경과 멀리 떨어진 곳의 원경으로 나누어 경관구조를 조사하였다. 경관 구성요소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 마을, 청산 등 16개 요소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별서의 배경은 총 96개의 경관 구성요소 가운데 산이 가장 높게(40.6%) 나타났고, 그 다음이 숲(21.9%)이다. 별서의 근경은 조망점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별서(정자)의 입지

적 특징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곳이다. 앞에서 분석한 별서의 입지는 “강변(江邊)-단안(斷岸)-구상(丘上)”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이러한 입지유형의 영향으로 경관 구성요소는 강(36.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계곡과 바위(13.9%)로 나타났다.

별서의 중경은 조망할 때 주로 넓다는 의미를 주는 곳이다. 중경의 경우 중첩된 산이 53.4%를 차지한다. 이것은 경관이 수려한 산에 별서가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다. 경상남도 별서의 특징은 산수가 수려한 특징과 함께 나타난다. 또한 중경에 자주 나타나는 경관구성요소는 산 아래에 펼쳐진 들(11.4%)과 마을(15.9%)이다.

별서에서 원경을 조망할 때 산까지 떨어진 거리에 따라 산이 청산으로 보이거나 혹은 녹색의 산으로 보인다. 특히 청산일 때 사람들에게 허창(虛敞)한 느낌을 주게 되며, 경리치리기법 상으로 원경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원경의 경우 조망점으로부터 평균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경남지방 별서의 경관구조적 특징, 즉 배경, 근경, 중경, 원경에서 가장 출현빈도가 높은 경관구성요소로 모식도를 그리면 그림 2와 같다. 별서의 배경은 산과 숲이다. 별서의

표 7. 경남지방 별서의 경관구조 분석표

경관 구성요소	배경	근경	중경	원경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강	4(4.2)	26(36.1)	2(2.3)	
건물	4(4.2)	1(1.4)		
계곡	2(2.1)	10(13.9)		
구릉	1(1.0)			
길	7(7.3)	3(4.2)		
들	4(4.2)	6(8.3)	10(11.4)	
마을	11(11.5)	7(9.7)	14(15.9)	
모래			4(4.5)	
묘소	1(1.0)			
산	39(40.6)		47(53.4)	
석가산		1(1.4)		
바위	1(1.0)	10(13.9)	3(3.4)	
수목		2(2.8)		
숲	21(21.9)	5(6.9)	6(6.8)	
연못	1(1.0)	1(1.4)	2(2.3)	
청산				27(100.0)
계	96(100.0)	72(100.0)	88(100.0)	2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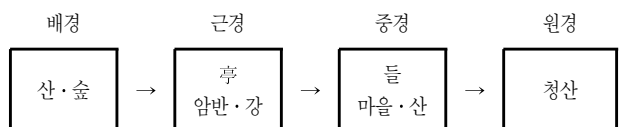


그림 2. 경남지방 별서의 경관구조 모식도

시설물인 정자는 암반 위에 조성되며, 그 주위로 강 또는 계곡이 흐르며, 트인 경관인 중경에는 들·마을·산이 펼쳐져 있다. 원경은 시각한계점으로 자주 나타나는데 청산(靑山)이 위치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별서 가운데 원경이 없이 중경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 모식도에서 원경 부분만 제외시키면 된다.

2) 경관처리기법 분석

별서에 활용된 경관처리기법을 분석하기 위해서 52개 대상지를 조사해 본 결과, 45개소(86.5%)는 경관처리기법을 조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7개소(13.5%)는 담 건설로 인한 이견 등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별서에 활용된 경관처리기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원경(遠景 38.2%)과 다경(多景 31.6%)이다. 환경(環景)과 취경(聚景)은 각각 11개소(14.5%)에서 나타났으며, 읍경(攄景)은 1개소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경남지방의 별서에서는 경관처리기법상 주로 원경과 다경이 활용되었다. 특히 창녕군 계성면에 있는 별서 문암정(聞巖亭)은 원경, 취경, 환경, 다경 네 가지 경관처리기법이 나타나는 별서 사례다.

3) 경관조망축 분석

경관조망축을 분석한 결과, 전체 52개소의 별서 가운데 48개소(92.3%)의 별서에서 경관조망이 가능하였고, 나머지 4개소(7.7%)의 별서에서는 입지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의 이유로 경관조망축을 형성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경관조망축이 형성된 45개소의 별서 가운데 경관조망축이 1개인 경우가 35.6%이고, 2개인 경우가 44.4%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관조망축이 1개 또는 2개인 경우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경관조망축은 대부분 1개 또는 2개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별서의 경관조망거리를 분석한 결과 경남지방 별서의 평균 경관조망거리는 5.6km로 나타났다.

표 8. 별서의 경관처리기법 분석

경관처리기법	개소	백분율(%)
원경(遠景)	29	38.2
다경(多景)	24	31.6
환경(環景)	11	14.5
취경(聚景)	11	14.5
읍경(攄景)	1	1.3
계	76	100.0

표 9. 경관조망축 수와 평균 조망거리

경관조망축	개소	백분율(%)	평균 거리(km)
1	19	39.6	5.6
2	19	39.6	
3	8	16.7	
4	2	4.2	
계	48	100.0	

IV. 결론

본 연구는 경남지방 52개소 별서의 경관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서 건축물인 정자의 평면형태, 별서의 입지 특징, 조경요소, 경관구조, 경관처리기법, 경관조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의 별서 건축물인 정자의 평면형태는 중심형, 편심형, 분리형, 무실형 모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경상북도의 분리형이나 전라남도의 중심형과 무실형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경상남도 별서의 입지는 “강변에 절벽이 있는 언덕 위”가 가장 대표적인 입지유형으로 나타났다.
3. 경상남도의 별서는 수경(水景)과 더불어 암경(巖景)이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자연에 있는 수경과 암경이 조영자에 의해 이름이 붙어지고, 각자가 새겨지면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여기에 시가 지어지면 문화경관이 된다.
4. 경상남도의 별서는 대부분 수경요소(88.2%)와 암경요소(74.5%)를 가지고 있다. 수경요소와 암경요소의 연출은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5. 별서의 수경관 구조는 하천이나 계류와 연계된 “폭포+소+급류”의 구조(75%)가 가장 대표적이다. 별서의 바위경관은 인위적으로 석가산을 쌓거나 돌을 배치하기보다 자연에 있는 암반과 바위, 대(臺)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6. 경남지방의 별서를 경관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배경을 이루는 것은 숲과 산이다. 정자는 암반 위에 조성되어 있는데, 그 주위로 하천이나 계곡이 흐른다. 중경은 트인 경관인데 들·마을·산이 펼쳐져 있으며, 원경은 5.6km 이상 떨어진 청산(靑山)이다. 이러한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구조다.
7. 경남지방의 별서는 주로 원경(遠景)과 다경(多景)을 경관처리기법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8. 경남지방의 별서는 대개 조망축이 1~2개이며 평균조망거리는 5.6km로 나타났다.

주 1)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읍지에서 효령대군의 회우정, 송유의 쌍청당, 금난수의 고산정, 윤행의 광암 등을 별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별서와 구분될 만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서와 별업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주 2) 皆遭亂世 屯蹙連 動輒得咎 自傷不偶 無復仕進意 逍遙自放 山林之下·江海之濱 營臺植松竹 枕藉書史 嘯詠風月 若慶州南山·剛州水山·陝州清寺·智異山雙溪寺·合浦縣別墅 此皆遊焉之所

주 3) 2010 전국 별서 명승자원 지정조사 보고서(문화재청 2010)의 46~52에 조사항목별 조사내용이 요약되어 있음.

주 4) 噫! 吾祖考嘗有志於此 而與小子訪花隨柳 而盤旋於龍巖之上 吾先君亦有意於此 與小子乘春俟秋 而逍遙於龍巖之上 而因循未遑

주 5) 嘉靖丙子 東湖處士章萬里 卜築于村 遊釣于岩

주 6) 장만리(章萬里)의 「영차일암(詠遮日岩)」

獨來崑上左
山靜白雲濃
積水盈其下
其源在此中
輞川開別業
箕出仰餘風
一出蕊譚歌
仙翁庶可逢

홀로 와서 차일암 위에 앉으니
산은 고요하고 흰 구름은 짙구나
깊은 물이 그 아래를 채우니
그 근원은 이 사이에 있네
망천(輞川)에서 별서를 짓고
산골에서 여풍(餘風)이 불어오네
한 번 마음속에서 노래를 부르니
신선 노인을 만날 듯하네

인용문헌

1. 김수진, 김태수, 심우경(2008). 이태(1483~1536)의 월연정 별서 경영과 이상향.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2): 18-30.
2. 김수진, 정해준, 심우경(2006).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4): 51-61.
3. 김영빈, 안계복(1985). 별서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30: 1-22.
4. 김용기, 홍광표, 이상윤, 심창진, 양달섭(1994). 조선시대 별서정원의 수경연출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2(1): 43-56.
5. 김용기, 이재근(1992). 조선시대 정자원림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영·호남의 별서정원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0(1): 15-31.
6. 김정호(1864). 대동지지(한양대학교 국학연구원. 대동지지. 1974. 대제각).
7. 문화재청(2010). 2010 전국 별서 명승자원 지정조사 보고서.
8. 민경현(1991). 韓國庭苑文化: 始源과 變遷論. 서울: 예경산업사.
9. 밀양문화원(2008). 국역 밀양누정록.
10. 박기용(1998). 거창의 누정.
11. 서명응(1759). 여지도서 上下(국사편찬위원회. 1979. 여지도서 上下)
12. 안계복(1988). 慶北地方을 中心으로 韓國의 亭樣式形成에 미친 要因分析에 관한 研究. 曉大論文集. 36: 471-510.
13. 안계복(1990). 樓閣 및 亭子樣式을 통한 韓國傳統庭園의 特性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안계복(2005). 풍류의 정원 루, 정, 대(樓, 亭, 臺).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150-157.
15. 양병이, 박은영, 박휘(2003). 선비문화가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1(1): 9-20.
16. 이재근(1992).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이항(1530). 신증 동국여지승람(민족문화추진회, 1971, 대한공문사)
18. 임지중(1985). 용암유집. 서울: 태창사.
19. 정동오(1986). 傳統的인 亭子園林에 立地特性 및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 25-38
20. 昌寧文化院(1995). 昌寧樓亭錄.
21. 한국학문헌연구소(1982). 읍지 1, 2, 3 경상도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22. 함양문화원(2001). 咸陽樓亭誌. 上-下.
23. 함천문화원(2002). 陝川樓亭錄. 함천군: 세기인쇄.
24. 홍광표, 이상윤, 정운익(2001). 한국의 전통수경관. 서울: 태림문화사.

원고접수: 2010년 11월 17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12월 11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